

形態素 分析과 相補的 分布

任 洪 彬

(서울대 명예교수)

1. 목 적

본고는 현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에 상당한 결함이 내재해 있으며, 그러한 결함이 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형태소 분석에서의 상보적 분포(相補的 分布, Complementary Distribution)의 문제를 소홀히 한 데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보적 분포란 A 와 B 가 동일 음소나 동일 형태소에 속하는 형식 요소일 때, A 가 환경 α 에 나타나고 B 가 환경 α 가 아닌 환경 β 에 나타나며, A 는 환경 β 에 나타나는 일이 없고, B 는 환경 α 에 나타나는 일이 없을 때, A 와 B 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형태론적인 논의에서 형태소의 정체가 문제될 때에는 ‘상보적 분포’의 문제는 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Bloomfield (1933)에서 형태소의 기본 개념이 제시된 이래, Harris (1947)에 와서 상보적 분포의 개념이 제안되었다. Hockett (1954)는 상보적 분포보다는 ‘비대조적 분포’를 더 강조하였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에서 상보적 분포의 적용 문제는 Nida (1946/1949)에서 더 정밀화되었다. 본고는 이를 중시하기로 한다.

상보적 분포가 바로 형태소의 정체를 밝혀 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 와 B 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정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각점이다. 같은 형태소에 속하는 이형태들이 어느 경우에도 완전히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두 형태가 음성 형식을 같이하며, 음성 형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이를 가지며, 거기에 더하여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또 그들의 분포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두 형태는 동일 형태소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조건을, 중세어나 현대어의 형태소 논의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 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2. '-더-'의 동일성 문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종결형에 나타나는 '-더-'와 관계절에 나타나는 '-더-'가 과연 같은 형태소인가 다른 형태소인가 하는 것이다. '-더라, -더냐' 등의 '-더-'와 '-던'의 '-더-'가 동일 형태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 시기에 남기심 (1976/1978), 서정수 (1977, 1978, 1979, 1990), 이기동 (1981), 장경희 (1985), 김창섭(1987), 이재성 (2001) 등에서 '-던'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든가, '-던'의 '-더-'와 '-더라, -더냐'의 '-더-'를 다른 것으로 보았고, 최현배(1937/1959), 나진석 (1971), 김차균 (1980), 임홍빈 (1982), 이창덕(1988), 이윤하 (2001), 고영근 (2004), 송창선 (2006) 등에서는 '-던'의 '-더-'와 '-더라, -더냐'의 '-더-'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필자는 임홍빈 (1982) 및 임홍빈 (1993)을 통하여, 관계절 '-던'의 '-더-'와 '-더라, -더냐'의 '-더-'가 형태소를 달리하는 것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홍식 (2003), 송창선 (2006)이나 박재연 (2008) 및 이재성 (2010) 등의 최근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던'의 '-더-'를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던'의 '-더-'와 '-더라, -더냐'의 '-더-'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던'을 '-더-'와 '-ㄴ'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보는 논의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적된 예들 중 이재성 (2010)의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 가. *세조가 용포를 입던라. (=이 2)

나. 세조가 입던 용포가 불상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3)

이재성(2010)에 의하면, “예문 (1 가)에서 보듯이 '-더-'가 쓰인 마침법은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표현할 수 없는 데 반해, 예문 (1 나)의 '-던' 관형절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이는 마침법의 '-더-'와 관형절의 '-더-'가 같은 형태소가 아님을 의미하며, 이는 곧 관형형 전성어미 '-던'에서 형태소 '-더-'를 분석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2 가)와 같은 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례가 제시될 수 있다.

- (2) 가. 책에 보니까 세조가 용포를 입더라/입었더라.
 나. 꿈에 보니까 세조가 용포를 입더라/입었더라.

(2 가)는 가능한 예이며,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2 가)의 사건은 화자의 직접 경험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임흥빈 (1993)에서 ‘흔적 확인’이라 하였던 것이다. ‘-더-’의 쓰임에 관한 한, (3 가)는 (3 나)와 그 성격이 같다. 그렇다면 (2 가)는 왜 이상을 가지는가? 그것은 화자가 직접 확인이든 간접 확인이든 과거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실을 추측한다고 가정해보기로 하자.

- (3) 가. *추측컨대 세조가 용포를 입더라.
 나. *추측컨대 세조가 입던 용포가 불상 안에서 발견되었다.

(3 가, 나)는 (2 가, 나)에 ‘추측컨대’라는 양태 요소를 부가해 본 것이다. (3 가)나 (3 나)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는 종결형의 어미 구성이나 관형사형 어미 구성 모두에서 ‘-더-’는 추측 양태와 공존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 (4) 가. ?*내가 비행기로 미국에 가더라.
 나. 그는 비행기로 미국에 가더라.
 다. 꿈속에서 비행기로 내가 미국에 가더라.
 라. 내가 그런 것을 하었더라.
 마. 내가 그것을 하었더니라.

- (5) 가. 나는 수학이 좋더라.
 나. ??*그는/*너는 수학이 좋더라.

(4 가)는 기묘하지만, (4 나)는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4 가)는 1 인칭 주어의 행동을 기술하는 동사문에 1 인칭 제약이 성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4 라, 마)는 이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4 가)의 이상은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이 의지적인 행동인 데 대하여, 화자는 그것을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이 기술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임흥빈 (1982, 1993)에서는 (4 가)와 같은 이상은 ‘-더-’가 ‘단절’의 인식 양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4 나)에서 화자는 ‘그가 비행기로 미국에 가는 것’을 나중에 알았거나 청자가 모르고 있던 일을 알려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청자의 의식의 단절 상태가 화자에게 투영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4 다)가 이상을 가지지 않는 것은 ‘꿈속에서’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 ‘단절’의 의미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4 라)나 (4 마)에서도 1 인칭 제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4 라)는 자기의 이전 행동의 결과나 흔적을 나중에 확인하는 의미가 작용한다. 이에 대하여 (4 마)는 청자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작용한다.

(5 가)에서는 심리 현상의 기술에 1 인칭 대상이 오히려 더 잘 쓰임이 드러나고, (5 나)에서는 2 인칭이나 3 인칭 대상에 ‘-더-’가 잘 쓰이지 못함이 드러난다. 이는 ‘-더-’ 문제 이전에 심리 현상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5 가)의 주어를 1 인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구문의 1 인칭 제약은 통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6) ‘-더-’의 1 인칭 주어 제약

가. ‘-더-’는 1 인칭 주어의 행동을 기술하는 종결형 어미에서 그 쓰임이 제약된다.

나. ‘-더-’는 종결형 어미 구성에서도 화자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일을 기술하는 경우 1 인칭 주어 제약은 해소된다.

(6 나)와 관련되는 다른 일례는 관형사절이다. 관형사절에서는 ‘1 인칭 주어 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 가. 철수는 [e_i 비행기로 미국에 가던] 나_i를 기내에서 만났다.

나. 철수는 [e_i 꿈속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가던] 나_i를 깨웠다.

(7 가)의 관형사절은 의지적인 행동을 기술하나 (7 나)의 관형사절은 그렇지 않으나, 어느 경우에도 ‘-더-’의 쓰임을 제약하지 않는다. (4 가, 다)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관형사절 구성에 나타나는 (9 가, 나)와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8) ‘-더-’ 관형사절과 1 인칭 주어 제약

관형사절에서는 ‘-더-’의 1 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8)을 기초로 ‘-던’의 ‘-더-’와 ‘-더라, -더냐’의 ‘-더-’의 형태소를 분리하는 것이 ‘-더-’ 분리론이다. 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여 보자. 그리하여 종결형 어미 구성의 ‘-더-’를 {더 1}, 관형사형 어미 구성의 ‘-더-’를 {더 2}와 같이 나타내 보기로 하자. 그러면 {더 1}과 {더 2}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9) {더 1}과 {더 2}의 분포

가. {더 1}은 종결형 어미 구성에만 나타난다.

나. {더 2}는 관형사형 어미 구성에만 나타난다.

다. {더 1}은 관형사형 어미 구성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라. {더 2}는 종결형 어미 구성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9 가-라)에서 보면, {더 1}과 {더 2}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1}과 {더 2}를 다른 형태소로 분석한 것은 (9 가-라)와 같은 분포적 특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다. {더 1}과 {더 2}는 (9 가-라)만을 고려할 경우 그 분포가 상보적이다. 나머지 문제는 그 의미 기능이다. 중요한 것은 1 인칭 주어 제약이다. 1 인칭 주어 제약이 관형사절 어미 구성에서 해소되는 것이 형태소를 달리할 만큼 큰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구성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더 1}과 {더 2}가 형태소를 달리하는 것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관형사절 어미 구성에서는 왜 1 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관형사절이 다른 절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형사절의 의미 세계를 하나의 의미 세계라고 하면, 그 절을 가진 주절은 또 다른 의미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세계의 단절을 형성하고 그것이 ‘-더-’의 인식 양태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의 1 인칭 제약이 해소되는 예를 동일 형태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다음 구성에 나타나는 ‘-더-’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해야 한다.

(10) 가. 내가 뭐라고 하던라도, 너는 반대할 것이다.

나. 내가 그것을 하었던들,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다. 그것은 내가 하었던니라.

(10 가)는 ‘-더라도’ 접속절의 주어에 1 인칭이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고, (10 나)는 ‘-던들’ 접속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접속절이나 부사절이 아닌 종결형 어미 구성에도 (10 다)에서와 같이 ‘-더-’가 쓰여 1 인칭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 예도 있다. 1 인칭 주어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형태소 분석을 달리 해야 한다면, (10 가-다)의 ‘-더-’도 다른 형태소로 설정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자명한 것이다.

(11) ‘-더-’의 형태소 분석

‘-던’의 ‘-더-’와 ‘-더라도, -더냐’의 ‘-더-’는 동일한 형태소이다. ‘-던’의 ‘-더-’에서 1 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것은 구성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던’의 ‘-더-’와 ‘-더라도, -더냐’의 ‘-더-’는 동일한 형태소가 아니라면, 상보적 분포에서 그 관련 제약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3. 중세어의 ‘-오/우-’와 상보적 분포

중세어의 선어말 형태 ‘-오/우-’를 1 인칭·대상 활용으로 본 것은 허웅 (1958)이다. 이에 대하여 이승녕 (1959)에서는 ‘-오/우-’를 ‘의도법’으로 보아, 허웅(1958)과 대립하였다. 이후 허웅(1959, 1963a, 1963b) 등 및 이승녕(1964, 1972) 등에 이어지는 논쟁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선연하다. 이에 대하여 임흥빈 (1981)은 ‘-오/우-’가 확실성 혹은 확인성의 양태를 나타내는 형태소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인칭·대상 활용설의 내용을 허웅 (1963a)에서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

(12) 가. ‘-니, -라, - 다’에 연결되는 ‘-오/우-’는 말할이 자신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을 서술할 때에 쓰는 1 인칭 어미이다. (밑줄 필자)

나. ‘-니, -라, - 다’에 연결되는 ‘-오/우-’는 거의 예외 없이 1 인칭 주어에
응하고 있다.

다 ‘-노니, -노라, -노 다’의 경우도 역시 1 인칭 주어에 응하는 어미이다.

라. ‘-다니, -다라, -다 다’와 ‘-과라, -과 다’도 1 인칭 주어에 응하는
어미이다.

(13) 허용 (1958, 1963a) 등에서 대상 활용은 관계절의 표제 명사가 관계절 안의
목적어일 때 관형사형 어미 구성에 ‘-오/우-’가 쓰이는 것을 말한다.

(12 가)는 인칭 활용을 말한 것이다. ‘-니, -라, - 다’는 ‘-오/우-’가 어미 구성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말한 것이다. ‘-라, - 다’는 종결형을 보인 것이며, ‘-니’는 접속형을
보인 것이다. 관형사형에 대해서는 (13)이 적용된다. (13)은 대상 활용을 말한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14) 가. 婢 아 나 니 <월인석보 21:55> (허용 1963: 7)

나. 내 ...프 리에 아 나호니 <월인석보 10:24> (허용 1963: 7)

허용 (1963a)에 의하면, (14 가)에 ‘나호니’가 아니라 ‘나 니’가 쓰인 것은 ‘婢’가
1 인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14 나)에서는 주어가 ‘내’이므로, ‘나호니’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관형사형 어미 구성에서는 ‘-오/우-’가 표제 명사의 관형사절 속에서의
기능과 관련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5) 가. 아뢰나 겨지비 아기 나 時節을 當 야 <석보상절 9: 25b>

나. (겨지비) 나혼 子息이 端正 야 본 사 미 깃거 며 <석보상절 9: 26a>

(15 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관형사절(혹은 관계절)의 서술어 ‘나 ’에는 ‘-오/우-’가
들어 있지 않다. 허용 (1963a)에 의하면, 이것은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時節’이
관형사절(혹은 관계절) 속에서 목적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8 나)에서 ‘나 ’이

‘나혼’과 같이 ‘오/우’를 가지게 된 것은 관계절의 표제 명사인 ‘子息’이 관계절 속 서술어의 목적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를 ‘대상 활용이라 부르고 있다.

허웅(1958, 1963a)의 ‘-오/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종결형 어미 구성과 접속형 어미 구성을 합하여 ‘비관형사절 어미 구성’으로 부르기로 한다.

(16) 중세어의 선어말 어미 ‘-오/우-’의 기능

가. 비관형사절 어미 구성에서 ‘오/우’는 주어가 1 인칭일 때 쓰인다.

나. 관형사절 어미 구성에서 ‘오/우’는 관계절의 표제 명사가 관계절 안의 목적어로 해석될 때 쓰인다.

(16 가, 나)는 그 분포가 상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포가 상보적이고 그 기능이 같거나 분포와 평행적이면, 문제의 두 형태는 동일 형태소로 묶일 수 있다. 그러나 (19 가, 나)의 기능은 동일 형태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비관형사형 어미 구성에서는 1 인칭 주어에 대한 활용을 보이는 것과, 관계절 구성에서 관계절의 표제가 관계절 속의 목적어로 해석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동일 형태소일 수 없는 것이다.

중세어에서 ‘-오/우-’는 분명히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어형의 변화도 동일하며, 어미 구조체에서 동일한 계열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기로 한다.

(17) {용언어간--+(-시-)}×(- -) (-더- || - -)}+ -오/우/아--+ {(-니) (-이다) (-다)
(-ㄴ) (-ㄹ) (-)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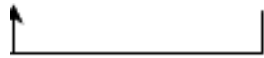
(17)에는 ‘-오/우-’ 외에도 이형태 ‘-아-’를 더 설정하였다. (17)의 뒷부분에는 어말 어미로 종결형이나 접속형이나 관형사형이 모두 상정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미 구조체에서의 출현 위치가 동일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8) 비관형사절과 관형사절 어미 구성에서의 ‘오/우’의 동일성

비관형사절과 관형사절 어미 구성에서의 ‘오/우’는 동일한 형태소이다. 어형이 완전히 같고, 어형의 변화도 완전히 동일하고, 어미 구조체에서 출현하는 위치도 완전히 동일하다.

무엇보다도, 허용 (1958, 1963a)의 ‘1 인칭 활용’의 세부 내용을 보면, (12 가)의 적용 범위가 (12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과도(過度) 일반화이다. (12 가)는 주어에 1 인칭이면 그 어미에 ‘-오/우-’가 쓰이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관련 사실은 (12 나)와 같이 ‘-오/우-’는 주어의 1 인칭에 응한다는 것이다. 인칭 활용을 다음과 같이 도시화해 보기로 하자.

(19) 가. [1 인칭]주어... V + -오/우- + F



나. [1 인칭]주어... V + -오/우- + F



(19 가, 나)에서 V 는 용언의 어간을 가리키고, F 는 어말 어미를 가리킨다. (19 가)는 ‘어미 중심적 기술’인 데 대하여, (19 나)는 ‘주어 중심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칭·대상 활용에 대한 서술 (12 나)는 (19 가)와 같은 것이고, (12 가)는 (19 나)와 같은 기술이다. 이 둘의 진리치를 같은 것으로 보기 쉬우나 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우-’가 1 인칭 활용이라면, 1 인칭 주어에 나타날 때에는 언제나 ‘-오/우/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세어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 가. 내 보아져 ____다 <석상 6: 14b>

나. (내) 사 마다 수 니겨 날로 메 便便安 키 고져 ____ 미니라
<훈언 3b>

다. 내 보아져 ____다 썬 <석상 6: 14b>

라. 내 놀애 求 ____다 <두시 16: 16b>

(20 가)는 주어에 1 인칭인데도 ‘-오/우-’가 쓰이지 않은 것이며, (20 나)도 주어에 1 인칭인데도 그 어미에 ‘-오/우-’가 쓰이지 않은 것이다. (20 다)의 주어도 분명히 ‘내’이다. 1 인칭 활용설이 온당한 것이라면, 밑줄 친 ‘ ____다’는 ‘노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25 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를 허용(1963a)는 단순한 예외라고밖에는 답할

수 없다. (20 라)도 밑줄 친 ‘ 다’는 ‘ 노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허웅(1963a: 6) 등은 ‘왜’라는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다.

둘째, 1 인칭 활용설에 의하면, 1 인칭이란 “반드시 대명사의 ‘나, 우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무릇 말할이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허웅 1963a)”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1 인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1) 가. 大衆이 이 말 듣 고 소리로 닐오 一切 衆生이 다 解脫 得과더
願 노 다 <月釋 21: 8a>

나. 내 나히 [...] 이제 여 니오 들흘 디내요니 <楞嚴 2: 6b>

다. 힘센 白牛 그 山中엿 진 香草 머그니 取호리니<楞嚴 7: 9a>

(21 가-다)의 밑줄 친 ‘一切 衆生이, 내 나히, 白牛이’를 허웅 (1963a: 6)에서는 1 인칭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내’가 1 인칭이 된다고 이들까지 1 인칭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셋째, ‘-샤-’ 형식은 1 인칭 활용설의 성립을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이다. ‘-샤-’는 ‘-시-+ -아-’로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우-’의 이형태의 하나로 ‘-아-’를 더 설정해야 한다. 우선 문제를 아주 간단히 하여 ‘-시-’를 주체 높임의 형태소라고 하여 보자. ‘-오/우/아-’를 일단 여기서 1 인칭 활용 어미라 하여 보자. 그렇다면, ‘-샤-’는 1 인칭 주어를 높인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 높임법에서 화자가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금기에 속하는 일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2) 가. 能히 圓 신 後에 普賢 常行애 眞實로 마 샤리니 <法華 7:3a>

나. 圓 신 後에 普賢 常行애 眞實로 마 시리니 <法華 6:132b>

(22 가, 나)는 ‘마 샤리니 : 마 시리니’의 대립을 보인 것이다. ‘-샤- : -시-’의 대립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1 인칭 활용설에 의하면, ‘-샤-’를 가진 문장의 주어는 1 인칭이어야 한다. 그런데 ‘-샤-’는 주체를 높인다. 주체는 1 인칭이다. 그것은 ‘나’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높인다’는 것이 된다. 1 인칭 활용설은 ‘화자의 자기 높임 금지’의 원칙을 어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3) ‘-샤-’ 및 화자의 자기 높임 금지 위반

중세어 ‘오/우’에 대한 1 인칭 활용설에 의하면, ‘-샤-’형식에 대한 해석에서 화자가 자기를 높인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화자의 자기 높임의 금기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가진 1 인칭 활용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결함이 많은 ‘1 인칭 활용설’에 의하여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구명되거나 ‘-오/우-’에서 제외된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1 인칭 활용설은 관형사절 안의 주어가 1 인칭이고 그 서술어에 ‘-오/우-’가 나타날 경우, 문제의 ‘-오/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4) 願 世尊하 내 니르논 이 陀羅尼呪를 드르쇼셔 시고 <釋詳 21: 55b>

(24)는 관계 관형사절에 ‘-오/우-’가 쓰인 예를 보인 것이다. ‘니르논’은 ‘니르+ 오+ ㄴ’과 같은 구성으로 ‘- 오- → -노-’와 같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오/우-’가 1 인칭 활용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기서도 ‘-오/우-’는 1 인칭 활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 활용설은 (24 가)에 ‘-오/우-’가 개입된 것이 ‘이 陀羅尼呪를’이 관계절 안의 목적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1 인칭 활용의 효력이 왜 여기서 정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관계절이 아닌 경우 대상 활용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5) 계 사를 일 닐어도 다 正 法에 順 며 <釋詳 19:24b>

밑줄 친 ‘사를 일’에서 ‘일’은 원리적으로 ‘사를’ 절 속의 목적어로 해석될 수 없는 보문 구성이다. 양정호 (2001)은 (24 나)와 같은 보문의 예는 관계절 어미 구성에 나타나는 ‘-오/우-’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칭·대상 활용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설명 원리의 이원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들이다.

셋째, 인칭·대상 활용설은 ‘-오 ’를 분석 불가능한 하나의 어미로 보아, 인칭·대상 활용의 ‘-오/우-’와는 성격이 다른 형태로 본다. 그러나 ‘-오/우-’는 인칭·대상 활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형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6) 가. 王이 놀라샤 讚嘆 야 니 샤 내 아 리 天神 中에 尊 니<釋詳 3:4a>
 나. 부테 니 시 네 어미 罪根이 기피 자 <月釋 23: 92b>
 다. 모 衆生 여러 죄실 그런 로 니 시 이 일후미 法 닐우미라 <金三 4: 36b>

허용 (1958, 1963a)의 인칭·대상 활용설은 (26 가)의 ‘니 샤 ’를 ‘니 +-시-+-오 ’와 같이 본다. ‘- ’란 어미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26 나, 다)의 밑줄 친 ‘니 시 ’와 같은 형식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니 시 ’의 ‘- ’는 ‘-오/우-’의 이형태인 ‘-아-’를 가지지 않는 형식이다.

그러나, (26 나, 다)와 같은 예는 15 세기 자료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 ’가 반드시 ‘-오/우-’를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샤 ’에 연결된 것은 ‘-오/우-’의 이형태 ‘-아-’이다. 중요한 사실은 ‘-오 ’ 혹은 ‘-아 ’가 분리 불가능한 독립적인 어미라면, 거기에는 다시 ‘-오/우-’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오 , *-아오 ’와 같은 어미 구성은 나타나는 일이 없다.

넷째, ‘-옴/옴’ 명사절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7) 가. 닷고미 藥 머금 호 服에 도 藥 다 머글 시라 <圓覺 상 1- 1:115a>

나. 꿈과 樂과 萬品이니 사로 로 주구메 가며 주그므로 도로 사라 三世에
輪廻호미 <永嘉 上 113a>

(27 가, 나)의 밑줄 친 ‘닷고미, 호, 사로 로, 주구메, 輪廻호미’과 같은 형식은 중세어 명사형 어미가 본래부터 ‘-옴/움’이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이 여겨진다. 그러나 중세어 명사형 어미가 어떻든 반드시 ‘-옴/움’과 같은 것이었다면, (27 가)의 밑줄 친 ‘머금’이나 (27 나)의 밑줄 친 ‘주그므로’는 치명적인 반증예가 된다. 명사형 어미 ‘-ㅁ’이 ‘-오/우-’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의 하나는 ‘-옴/움’ 혹은 ‘-암’이 분리 불가능한 어미라면, 여기에도 다시 ‘-오/우-’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옴/우옴’과 같은 어미 구성은 없다. 그렇다면 왜 명사형 어미 ‘-ㅁ’에는 ‘-오/우/아-’가 잘 연결되는가? ‘-ㅁ’에는 확실한 일을 표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확실성이나 확인성의 양태 표지를 쉽게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기’와 다른 점이다. 명사형 어미에는 항상 ‘-오/우-’가 쓰이는 것으로 본다면, ‘-기’에는 ‘오/우’가 쓰이지 않는 것이 불가사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기’는 확실성이나 확인성의 양태와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문법 연구에서 형태소 분석처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형태소 분석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거대한 문법 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도, 더 좋은 분석을 탐색하지 않고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형태소 분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던’의 ‘-더-’와 ‘-더라, -더냐’ 등의 ‘-더-’를 다른 것으로 보는 형태소 분석의 한 가지 관행을 문제삼았다. 우선 ‘-던’의 ‘-더-’와 ‘-더라’의 ‘-더-’는 그 외형이 완전히 같다. 그리고 분포가 상보적이다. 그런데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능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던’의 ‘-더-’와 ‘-더라’의 ‘-더-’의 차이로 크게 주목된 것은 ‘-더라’의 ‘-더-’가 1 인칭 주어 제약을 보이는 데 대하여 ‘-던’의 ‘-더-’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던’의 ‘-더-’에서 1 인칭 제약이 해소되는 것은 구성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능적 차이가 분포적 차이와 평행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던’의 ‘-더-’와 ‘-더라’의 ‘-더-’가 동일 형태소임을 의미한다.

중세어의 선어말 어미 ‘-오/우-’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인칭.대상 활용설’이 학계를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칭.대상 활용설’은 ‘1 인칭 활용설’과 ‘대상 활용설’을 기계적으로 합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두 구성에서 ‘-오/우-’는 외형이 완전히 같다. 그리고 분포는 상보적이다. ‘인칭.대상 활용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그 기능을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의미나 기능이 동질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관계절의 ‘-오/우-’와 비관계절의 ‘-오/우-’를 하나의 형태소로 묶을 수 있는가? 묶을 수 없다. ‘1 인칭 활용’이라는 것과 ‘대상 활용’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 점에서 인칭.대상 활용설은 ‘-오/우-’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81), 중세 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 (2004), “형태소의 분석 한계”, 언어학 3, 29-35.
- 고영근 (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19-51+ 380.
- 김유범 (2001), 15 세기 국어 문법 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 회상 형태소 {더}를 중심으로”, 한글 169, 299-334.
- 나진석 (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남기심 (1976), “국어의 시제”,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201-214.
- 남기심 (1978), “국어 문법의 상과 시제”, 한국학보 4-3, 164-175.
- 남기심 (1982), “국어의 공시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배달말 7, 1-10.
- 남기심 (1986), “이형태의 상보적 분포와 통사 구성”, 한글 193, 37-46, 한글학회.
- 박재연 (2008), “‘-던가’, ‘-더라’ 의문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199-227.
- 서정수 (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가지는가 :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 2-1, 97-127.
- 서정수 (1978), “‘(었)더니’에 대하여”, 눈피 허웅박사 환갑기념논문집. 서정수 (1990)에 재록, 363-394.
- 서정수 (1979), “‘(었)던’에 관하여”, 여천 서병국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서정수 (1990)에 재록, 395-421.
- 서정수 (1990), 국어 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송창선 (2006), “현대국어 선어말 어미 ‘-더-’의 기능 연구 : ‘-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9, 55-73.

- 양정호 (2001), 중세국어 동명사의 선어말 어미 ‘-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호 (2004),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 34, 1-1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어문연구회 편 (1965), 국어학개론 : 강좌, 수도출판사.
- 이승녕 (1959), “어간 형성과 활용 어미에서의 ‘-(오/우)-’의 개재에 대하여”, 논문집 8 (서울대), 3-70.
- 이승녕 (1964), “‘-(오/우)-’론고 : 주로 허용 씨의 기본태도의 일대 변모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7, 3-20. 이승녕 (1972) 재록됨.
- 이승녕 (1972), 국어학 연구, 형설출판사.
- 이윤하 (2001), “{-더-}와 자각”, 어문연구 29-1, 5-36.
- 이필영 (2002), “관형사형 어미 ‘-았던’의 의미에 대하여”, 고영근 외 편(2002),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317-334.
- 이재성 (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이재성 (2010), “선어말 어미 ‘-더-’의 문법 기능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26, 41-64.
- 이창덕 (1988), “‘-더-’에 관한 문제”, 말 13, 연세대 한국어학당, 195-218.
- 이홍식 (2003), “선어말 어미 ‘-더-’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29-255.
- 이희승 (1950), 국어학 개론, 민중서관.
- 임홍빈 (1981), “선어말 {오/우}와 확실성”, 한국학논집 3, 91-13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임홍빈 (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 7, 433-47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임홍빈 (1993), “다시 {더-}를 찾아서”, 국어학 23, 255-323, 국어학회.
- 장경희 (1985), 현대 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 (1983), {-더-}의 의미와 용법,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 신현숙 (1982), “관형형 어미의 의미 분석 : -은, -는, -던 -을”, 상명여대논문집 10, 93-116.
- 최동주 (1996), “선어말 어미 ‘-더-’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19,
- 최동주 (1988),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출판부.
- 최현배 (1959), 깃더 우리말본, 정음사.
- 허웅 (1958), “삼입 모음고”, 논문집 7(서울대). 허웅 (1963b)에 재록됨.
- 허웅 (1959), “삼입 모음 재고”, 한글 125. 허웅 (1963b)에 재록됨.
- 허웅 (1963a), “또다시 1 인칭 활용어미로서의 {오/우}를 논함”, 어문학 10. 허웅 (1963b)에 재록됨.
- 허웅 (1963b),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 허웅 (1975), 우리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Bloomfield, L. (1933),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 Harris, Z. S. (1942), “Morpheme Alternants in Linguistic Analysis”, *Language* 18-3, 169-180.
- Hockett, C.. F. (1954), “Problems of Morphemic Analysis”, *Language* 23-4, 321-343.
- Nida, E. A. (1946/1949), *Morphology :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니다[Nida] 저, 김진형 역 (2000), 형태론: 단어의 기술적 분석, 대우학술총서 481)